

연어

연어는 연어과의 북태평양 어류를 지칭하는 말이다. 본래 연어과 어류는 대서양 연어(*Salmo salar*)와 태평양 연어류(*Onchyrhynchus*)로 구분된다. Salmon이라는 영어명은 본래 커다란 대서양 연어만을 가리켰다.

Oncorhynchus keta

연어는 몸에 반점이 약간 있고 무게는 3.6kg가량 나간다. 산란기는 가을이며, 어린 연어는 봄에 부화된 지 몇 주일 후에 바다로 돌아간다. 연어는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몸의 양옆이 은빛으로 빛나지만 산란기가 되면 몸 색깔이 종마다 달라진다. 수컷은 일반적으로 턱이 구부러지는데, 이러한 변화는 태평양 연어의 수컷에서 가장 현저하다. 성어는 봄 또는 가을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, 이때는 낚시의 미끼를 만나도 그것을 먹지 않는다. 산란장은 바다에서 가까운 편이나 왕연어(*O. tshawytscha*)와 연어(*O. keta*)는 강의 원류까지 헤엄쳐 간다. 연어의 회유는 본능에 의해 강제되며, 산란장에 도달하기까지 여울과 싸우고 높은 폭포를 뛰어넘는다. 암컷은 자갈 구덩이를 파고 산란한 뒤 알을 파묻는다. 어린 연어는 60~200일 후에 부화하며, 먹이를 찾아 꿈틀거리며 자갈 사이를 빠져나갈 때까지 알주머니 속의 난황을 소모한다. ④

